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Chapter. 00 퀀트 투자에 앞서서



알려진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여 요리를 만들어내듯 만들어진 '투자 레시피'대로 똑같이 투자하는 기법을 **'퀀트 투자'**라고 부름

퀀트: 'Quantitative (계량)'의 줄임말

계량화가 가능한 규칙 기반의 '퀀트 투자'는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에 의해 만들어짐





실전 응용력

애매모호한 투자 레시피 < 정확하게 표현된 투자 레시피

"좋은 투자 레시피"

어느 종목을 언제 매수/매도 할 지 자연스레 알 수 있어 고민할 것이 없어짐

1. 가치 투자

주식이란 기업 구성 요소 중 일부,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 저평가된 주식을 구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

- 가치 투자의 핵심: '싼 값에 구매해 비싼 값에 팔아라' 라는 투자의 본질과 일치
- 유명한 가치 투자자 : 워런 버핏
- 장점: 주가와 기업가치가 수렴하는 점을 활용해 저평가된 종목을 구매해 차익을 실현 할 수 있음
- 단점: 기업의 가치 판단을 위해선 고려 사항이 매우 많음
 (기업의 수익성 및 보유 자산의 평가, 시장의 비전, 경영진의 능력, 경쟁사의 동향 등)



2. 기술적 투자

주식엔 주가를 보여주는 차트가 존재, 차트를 통해 과거의 과격과 거래량의 패턴으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며 투자하는 방식

- 주가 형성의 추세를 만드는 주체: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관, 외인
- 유명한 기술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 리처드 데니스
- 장점: 개별 기업에 대한 사전 분석 필요 X, 차트를 통해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판단
- 단점 : 실전 적용 난이도가 높고 판단하는 추세에 따라 저항선과 지지선이 달라짐 이 부분에서 주관적 소견이 개입되기 마련



3. 매크로 투자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경제 상황을 투자에 반영하는 방식

-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 : 레이 달리오, 조지 소로스
- 경제 상황을 살피기 위해선 여러 변수를 분석해야 함
- 국내 지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거시지표를 참고해 추세를 가늠해야 함
-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뉴스는 주가에 선반영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화된 나만의 의견이 필요



4. 정보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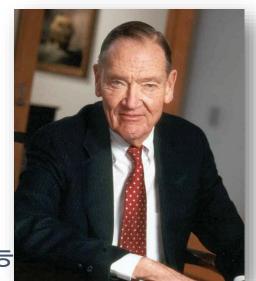
투자 정보를 받아 매매 활동을 하는 방식

- 소통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넓음 (종목 별 스토리, 실적 발표, 관련 사업, 거시 경제의 이슈, 정부의 정책 동향 등)
- 장점: 진입 장벽이 낮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
- 단점: 우리가 얻는 정보는 이미 시장에 알려졌거나, 주가에 선반영 됐을 가능성이 높음
- 신규 뉴스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재빨리 눈치채고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음

5. 패시브 투자

인덱스 펀드나 ETF같은 상품에 투자해 저렴한 수수료로 시장 수익 자체를 추정하는 방식

- 패시브 투자의 창시자 : 뱅가드 그룹 창업자 '존 보글'
- 장점 : 투자에 문외한인 투자자도 수익 실현이 가능 여러 ETF를 잘 조합하면 MDD(Maximum Draw Down)를 20%미만으로 감소 가능



- 인덱스 펀드: 특정 index를 정해 해당 index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
- ETF: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진 펀드

5. 패시브 투자

- 패시브 펀드: 특정 index의 성과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
 - 1) 시장이나 종목 주가 분석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저렴
 - 2)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불필요해 투자 보수가 저렴한 편
- 액티브 펀드 : 특정 index의 성과를 초월하는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
 - 1) 펀드 매니저의 개입을 통해 종목 탐색과 매수/매도 타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펀드
 - 2) 패시브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수가 발생하여 보수가 높은 편

퀀트 투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몇 분만 투자하고 아무런 투자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됨

- 퀀트 투자의 효과:
 - 1) 시장에 존재하는 99%의 펀드매니저보다 좋은 수익 기대 가능
 - 2) 시장이 하락장이어도 MDD를 20% 미만으로 유지 가능
- 바쁜 현대인에겐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고도 뛰어난 성과를 바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투자
- 퀀트 투자자는 주기적인 리밸런싱 과정만 수행해주면 됨

리밸런싱:

주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변경하거나 비중을 수정하는 과정

- 1) 이익 성장이 꺾인 기업 종목을 이익 성장이 높은 다른 기업 종목으로 교체하는 작업
- 2) 주식, 채권, 실물자산 등에 투자를 해놓은 뒤 시간이 지나면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 투자 시점 대비 바뀐 실제 비중을 설정해놓은 목표 비중에 다시 맞춰주는 작업

백테스트:

특정 전략을 과거의 역사에 대입해 주가의 흐름이나 수익률을 검증하는 과정

- 1) 과거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가
- 2) 최악의 순간엔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가
- 3) 어느 시장에서 해당 전략이 특히 강했나 / 약했나
- 4) 손실 후 본전 회복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가

'백테스트'를 통해 현재의 아이디어와 전략의 향후 기대 수익과 리스크 등을 검증할 수 있음

성공적 투자 전략은 많지만 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은 적을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임

인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심리가 투자에 개입되어 투자를 망치게 됨



부동산으로 번 사람은 꽤 있지만, 주식으로 번 사람은 적으면서 왜 되려 망한사람이 많을까?

금액의 규모(매물 가격, 세금, 수수료 등)

주식 < 부동산

거래난이도 (접근성, 요구되는 노력, 시간)

주식 < 부동산

투자자 수

주식 > 부동산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은 투자자가 가볍고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편향에 사로잡혀 비합리적 선택을 내림

권위 편향, 호감 편향

권위 편향

'권위'가 느껴지는 이의 말을 맹신하는 현상

호감 편향

본인이 좋아하는 이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현상

권위 + 호감 편향

'권위'있는 사람의 외모, 목소리, 자신감 등에 반해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하는 이례적 경우도 더러 존재

결론: '권위'있거나 '호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추천하는 주식을 살 가능성이 큼 제대로 된 팩트 체크 없이 남의 말에 현혹되어 종목 매수

스토리텔링의 폐해

- 대부분의 투자자는 투자 전에 투자 할 종목의 스토리에 대해 공부하곤 함
- Ex) 메타버스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개발해낸 바이오 기업 등

결론: 저평가된 기업, 수익 창출 검토 보단 아름다운 스토리에 빠져 주식을 살 가능성이 큼 재무재표 등의 딱딱한 정보보단 기업의 스토리에 집중하며 현실 가능성 같은 건 고려 X

과잉 확신 편향

- 대부분의 투자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1~3개로 집중하여 투자하는 성향이 강함
- 본인의 투자실력을 과잉평가,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오를 거라 확신하는 자만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됨 결론: 투자자는 본인의 실력을 과대평가해 적은 수의 종목에 전 재산을 몰아넣을 가능성이 큼 '언제나 난 뛰어난 투자자'식의 오만함

손실 회피 편향

주식의 특성

종목에 대한 깊은 연구, 뛰어난 전략 설계에도 손실이 기록되기 마련

해결 방안

- 1) 투자자는 손절 라인을 설정
- 2) 리밸런싱 과정에서 종목 수정

•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면 쉽게 손절 하지 못하고 본전 라인 회귀 후 수수료만 지불하고 수익 X

결론: 과잉 확신 편향이 더해져 투자된 적은 수의 종목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종목이면 전체 계좌는 무너짐 하락 추세의 종목에 대해 손절 라인을 잡지 못해 큰 손실을 보게 됨

처분 효과 편향

- 대부분의 투자자는 본인이 매수한 종목이 고수익률을 보여줄거라 믿음
- 하지만 빠르게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 투자자는 준수한 수익만 발생하면 재빨리 처분해버려
- 10배, 100배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일지라도 그 만큼의 기대를 누리지 못하고 후회함

결론: 주식을 너무 빨리 처분하는 투자자는 좋은 기회에도 많은 수익을 보지 못함 상승 추세의 종목이라도 짧게 수익을 내버리고 말아 더 큰 수익을 얻어내지 못함

기억해야 할 투자 불변의 진리 :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확증 편향

•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 하는 성향이 있음

자신이 매수한 종목과 관련된 호재: 기억 O

자신이 매수한 종목과 관련된 악재: 기억 X

결론: 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뒤 관련 정보를 찾는 와중에도 좋은 뉴스만 받아들여 본인의 매수 타점에 대해 합리화해버려 객관적으로 미래가 어두운 종목을 손절하지 못하게 됨

통제 환상 편향

현실적 대부분의 투자자

구체적 투자 전략 설계 X 남의 말이나 미디어의 정보에 현혹돼 종목 매수 그저 매수한 뒤 안주해버리는 일명 기도 메타 투자 전략을 세운 투자자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전략에 개입하면 더 나은 수익을 볼 수 있진 않을까 하며 착각함

Ex) '전략대로라면 지금 매도하고, 채권 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그럴 시기가 맞나?'

결론 : 좋은 전략의 설계에도 오래 가지 못하고 주관적 판단을 전략에 개입해버림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MDD조차 낮은 투자 전략을 설계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함



- MDD(Maximum Draw Down) : (최저점 / 전고점) 1
- 코스피 (Kospi): 우리나라 대표 가치가중 지수
 - -> 시총이 높은 기업은 코스피 지수의 형성에 그 만큼 비중이 더 큼 반대로 시총이 낮은 기업은 비중이 더 작게 됨 가장 kospi지수 비중이 높은 주식: 삼성전자
- Ex) 94년도 11월 1,138 포인트에서 98년도 6월 277 포인트까지 떨어진 시점의 코스피 MDD
 (277 1,138) 1 = 약 -0.756, MDD는 약 75.6%

• MDD가 커지면 발생하는 문제 1. 수학적 문제점

손실(%)	복구까지 요구되는 수익률(%)	손실(%)	복구 까지 요구되는 수익률(%)
5	5.3	66	200
10	11.1	75	300
20	25	80	400
25	33.3	90	900
33	50	98	1,900
50	100	99	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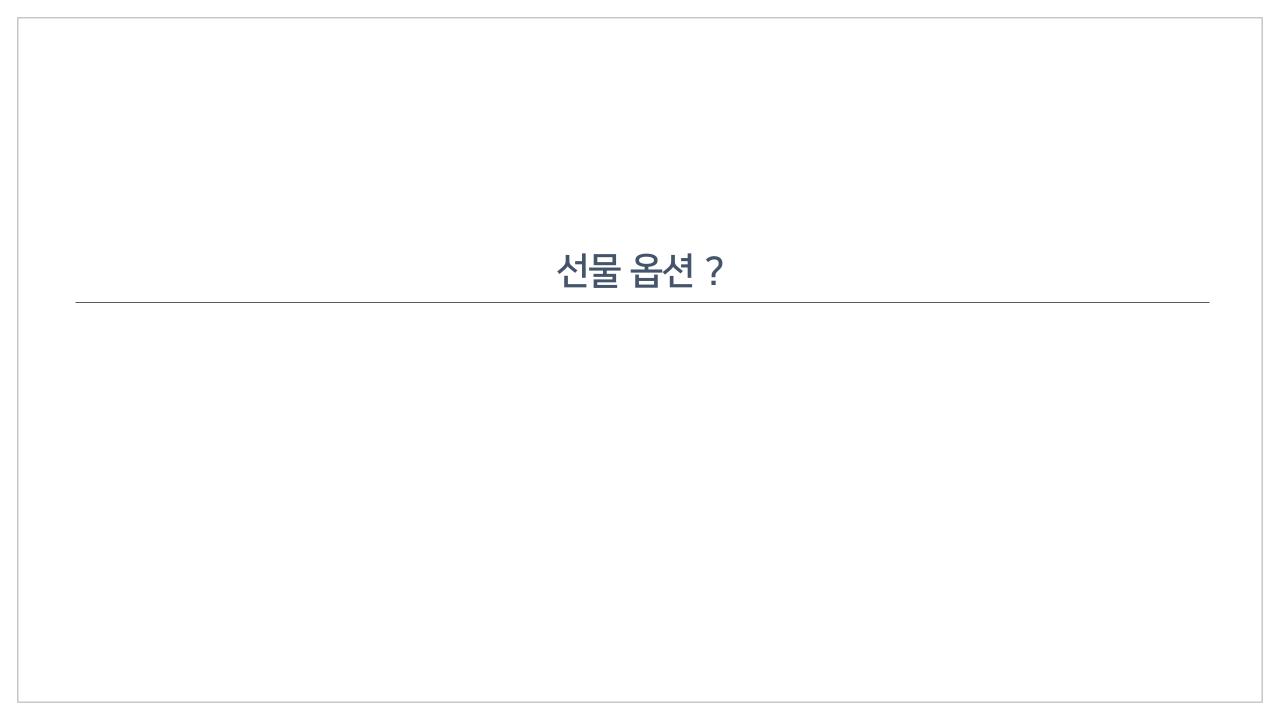
•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까지 요구되는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 -> 손실의 비대칭성

• MDD가 커지면 발생하는 문제 2. 심리적 문제점

1) 손실 발생 : 투자자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본전 회복까지 매꾸려고 함

2) 평정심 상실: 투자자는 조급함에 평정심을 잃고 이상한 투자를 하게 됨

처음엔 우량주 위주의 안정적 투자를 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비우량주, 테마주, 암호화폐, 선물옵션 등에 손을 댐



• 선물 옵션: 주식, 채권, 원자재 가격 등 기초 자산에 묶인 파생상품



- 매수자의 의도 : 주식 A가 미래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를 것 같아!
- 매도자의 의도: 주식 A가 미래엔 현재 가격 500원보다 떨어질 것 같은데 잘됐다!
- 이 것이 선물 거래의 의미 즉,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여 현재 시점에서 거래를 하는 것
- 여기서 정해 놓은 한 달 뒤 시점: '선물 옵션 만기일'

• 선물 옵션: 주식, 채권, 원자재 가격 등 기초 자산에 묶인 파생상품

주식 A

현재 가격: 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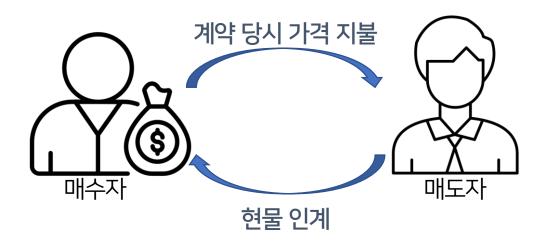


- 매도자의 이점: 매도자는 가격 500원을 유지하며 권리금 100원을 취할 수 있음
 -> 주식 A의 가격에 대해 위험을 회피하며 가격 유지가 가능 (자산 헷징) + 100원의 권리금 이익 실현
- 매수자의 이점: 매수자는 차익을 노려 권리금 100원에 큰 수익 가능
 ->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외에 근본적으론 원자재 시세 변동에 따른 매출원가 비용 헷징도 존재)

• 선물 옵션 거래 방식

실물인수도 방식

선물 옵션 만기일에 인수 대금을 지불하고 현물을 인수받는 것



현금 결제 방식

선물 옵션 만기일 시점과 계약일 당시의 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것



• 선물 옵션의 종류

콜옵션

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옵션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

지수 하락을 기대하고 옵션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주식 A

현재 가격: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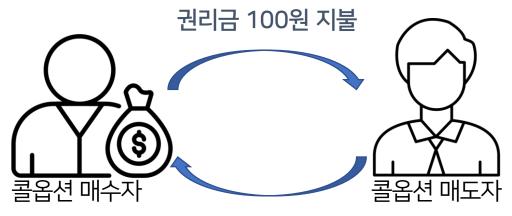
6개월 뒤

500원? 1,500원?

얼마가 되든 가격이 변동할 것

선물 옵션 (콜옵션)

주식 A 6개월 뒤 6개월 뒤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1,500원 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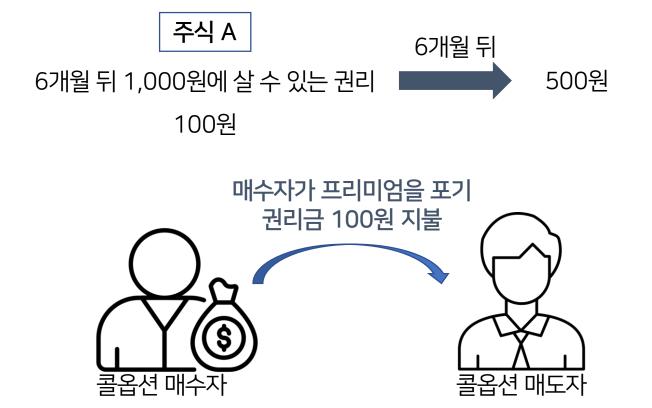
주식 A를 1,000원에 살 권리 지급 만기일에 1,000원에 주식 A 인계

콜옵션 매수자

1,500원 - 1,000원 - 100원 = 400원 수익 실현 (현재값) - (계약 당시 값) - (권리금)

콜옵션 매도자

1,000원 - 1,500원 + 100원 = -400원 손해 발생 (계약 당시 값) - (현재값) + (권리금) 선물 옵션 (콜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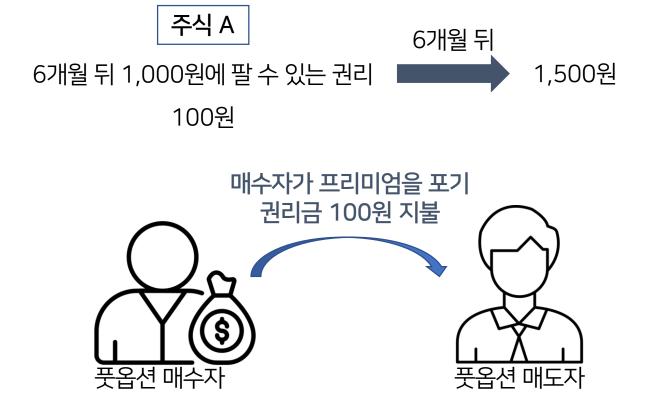


콜옵션 매수자

굳이 500원까지 떨어진 주식 A를 1,000원이나 지불하며 손해 볼 필요 X 권리금 100원만 지불하여 100원의 손해만 발생

> **콜옵션 매도자** 권리금 100원 수익

선물 옵션 (풋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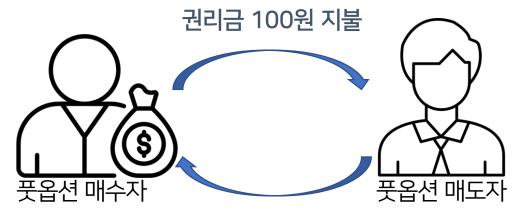
풋옵션 매수자

1,500원에 팔 수 있는 주식 A를 굳이 1,000원에 파는 것은 손해 프리미엄을 포기해 권리금 100원의 손해만 보면 됨

> **풋옵션 매도자** 권리금 100원 수익

선물 옵션 (풋옵션)

주식 A 6개월 뒤 6개월 뒤 500원 100원



500원이 된 주식 A를 만기일에 1,000원으로 주식 A를 풋옵션 매수자로부터 매수

풋옵션 매수자

1,000원 - 500원 - 100원 = 400원 수익 발생 (계약 당시 값) - (현재값) - (권리금)

풋옵션 매도자

500원 - 1,000원 + 100원 = -400원 손해 발생 (현재값) - (계약 당시 값) + (권리금)

• 선물 옵션의 종류 별 수익성

옵션 별 포지션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콜옵 션 매수자	수익: 무제한	손해: 한정
<mark>콜옵션 매도</mark> 자	손해: 무제한	<mark>수익</mark> : 한정
풋옵 션 매수자	<mark>손</mark> 해: 한정	수익: 무제한
풋옵 션 매도자	<mark>수익</mark> : 한정	손 해: 무제한

• 콜옵션 / 풋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수익이 예상: 권리금을 지급하고 차익 실현

만기일에 손해가 예상: 프리미엄 포기가 가능, 권리금만 지급하고 큰 손해 방지

• 콜옵션 / 풋옵션 매도자는 만기일에 각 옵션 매수자와 현물 인수인계 수행

-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야 비로소 투자의 목적을 달성한 것
 - -> 낙원계산기를 통해 나만의 맞춤형 수익 계산 가능

낙원계산기

- 보유자산 : 현재 보유한 순자산 입력
- 저축금액: 첫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입력 → 이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정
- 은퇴 시기: 은퇴 희망 시기 혹은 정년퇴직 시기 입력
- 저축 증가율: 인플레이션과 같은 개념으로 3%로 가정
- 명목수익률: 우리가 원하는 투자 수익률



• 퀀트 투자의 4단계

1. **투자 아이디어 찾기** 투자 레시피 탐색 서적, 유튜브, 논문 등 활용 2. **투자 전략 수립**아이디어 계량화
규칙 기반의 전략으로 전환

3. 백**테스팅**수립한 전략을 ^{II}
검증하는 과정 진행

4. **종목 찾기** 검증까지 마친 전략에 맞는 **종목** 선정

- 1)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상승한 기업 20곳 선정
- 2) 선정 기업 중 시총이 낮은 순으로 투자
- 3)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달 마지막 거래일에 1~2과정 반복

- 해당 전략이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할까
- 월, 연 단위 승률은 어떨까
- 전략이 통하지 않는 구간은 어디며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까
- 이 전략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일까
- 손실 복구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 이 전략에 최적화 된 종목은 무엇일까